

# 해사 분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한국여성해사인협회 설립

- 국내외 여성 해사인 협력망(네트워크) 형성 및 해사 분야 인재 양성 등 역할 기대

해양수산부(장관 조승환)는 ‘사단법인 한국여성해사인협회(회장 조소현, 이하 한국여성해사인협회)’의 비영리법인 설립을 5월 16일(화) 허가하였다고 밝혔다.

한국여성해사인협회는 국제해사기구(IMO) 산하의 여성해사인협회\*(Women In Maritime Association, WIMA)와 협력하는 국내 단체로, 우리나라 해사 분야에서 활동하는 모든 여성 해사인이 가입할 수 있다.

\* 국제해사기구(IMO)가 1988년부터 시작한 ‘성평등 계획’의 일환으로 해사 분야 양성평등 달성과 해사산업 기술발전 등을 목표로 조직(2004년 태평양지역여성해사인협회 최초 설립 후 현재 아프리카·아시아·카리브해·아랍 등 8개의 지역별 협회 운영 중)

앞으로 한국여성해사인협회는 해양수산부 산하 비영리법인으로서 경력 개발과 전문 학술연구 등 여성 해사인의 역량 강화 및 해사산업 발전을 위한 활동들을 활발히 이어갈 예정이다. 아울러, 국제해사기구(IMO)·여성해사인협회(WIMA) 등 국내·외 관계 단체와도 활발히 교류하며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.

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“한국여성해사인협회가 해사 분야에서 활동하는 모든 여성들을 위한 단체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, 해사 분야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데도 앞장서 주시기를 바란다.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해사안전국 해사안전정책과	책임자	과 장	최성용 (044-200-5810)
		담당자	사무관	김희곤 (044-200-5825)

## 참고 1

## 사단법인 한국여성해사인협회 개요

### □ 협회 개요

- (명칭) 사단법인 한국여성해사인협회(Women In Maritime Association Korea, 약칭: “WIMA KOREA”)
- (목적) 국내·외 여성 해사인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여성 해사인의 권익신장 및 해기 전문지식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등 해사분야 양성평등 달성 및 해사산업의 발전에 기여
- (회원) 정회원 260명과 학생회원 620명으로 구성

### □ 주요 사업

- 여성 해사인의 경력개발 및 해기 전문지식 증진을 위한 사업
- 여성 해사인의 역량강화 지원 및 컨설팅
- 여성 해사인의 관련 각종 세미나, 워크숍 개최 및 학술연구 활동
- 여성 해사인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
- 국제해사기구(IMO) 및 여성해사인협회(WIMA) 관련 국제회의 참여 및 활동
- 그 밖에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### □ 협회 로고



참고 2

사단법인 한국여성해사인협회 활동사진



'22.6.9 제1회 WIMA KOREA 멘토링 데이



'22.9.24 제1회 WIMA KOREA 플로깅 챌린지